

## 시립 병원의 호스피스

김민정

요셉의원 내과 의사 · 본회 제1부회장

**멀지않은** 과거에 썼던 일기나 친구에게 보낸 E-mail 내용을 다시 읽어보게 될 때가 있는데 내가 정말 이런 생각을 했었던가 하고 놀라는 경우가 가끔있다. 그럴 때 느끼는 감정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로부터 전해지는 전과 다른 느낌에서 비슷한 점이 하나 있다.

생경함 이랄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기쁨과 경외이다.

이 병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던 날, 하루만에 환자 세 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직잡은 충격을 받았다. 회복이 불가능 하다고 진단되어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른 종합병원으로 부터 이송되어 온 환자도 있고 수용시설이나 길거리에서 위독한 상태로 119로 실려오는 환자가 많이 입원하므로 자연히 이 병원의 환자 사망률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는 하나 환자를 돌보는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죽음이 피하고 싶은 사건일 뿐이다.

여기에는 이별을 애석해하는 가족도 없고 저 세상에서 새로 태어나 영복을 누리길 비는 기도도 없다.

행려병동에는 스스로 밥을 먹거나 용변을 볼 수도 없고 사지가 위축되어 서 있을 수도 없는 환자가 반 이상이다. 또 정신이상으로 정신과 약물치료를 수십년 복용하는 중에 간경화증, 고혈압, 당뇨, 암이 발생하여 입원하게 된 환자도 많다. 그래서 이 병원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밥을 먹이거나 몸을 씻기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환자 상태가 처참하고 가족이 없어 정신적으로도 부담을 많이 느낀다.

동료 레지던트도 없이 혼자서 이런 심각한 환자를 돌보는 주치의는 너무 많은 환자를 저 세상으로 떠나 보내면서 아무런 위로와 평화가 없는 오로지 치료의 실패라는 인식만 가지고 괴로운 의사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병원에서야 말로 호스피스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되지 않을까?. 그러나 가장 먼저 앞장서서 호스피스 케어를 해야 할 간호과에서는 과거에 생각이 부족했던 어떤 봉사자가 이 병원 환자의 열악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순간적인 판단을 하여 병원직원에 대한 비판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바람에 간호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책임 추궁에 시달렸던 사례가 있다며 호스피스팀에 가장 중요한 봉사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있다.

하느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인간의 무력함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의기소침한 가운데 환자와의 만남은 나에게 생명수와도 같은 힘을 넣어 주었다. 정말 이상하게도 아무런 기대도 없이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 때까지 진료팀과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증세의 호전없이 죽을날만 기다리던 환자에게서 맑은 눈빛을 보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환자의 고통없는 저 세상으로의 부활이 있을거라는 확신이 든다.

그 동안의 고통때문에 의식만 돌아오면 욕을 하고 대소변 냄새와 욕창으로 악취를 풍기던 환자가 어떻게 이런 맑은 눈빛과 뉘우침의 말을 전해줄까라 상상했겠는가? 고통의 극치에서 죽음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부활의 기대로 설레이는 잔잔한 기쁨이 함께 하는 나에게도 전해지는 것이다.

나에게 있는 작은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 옆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시립병원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진정 의미 있고 특별한 것이다. 이곳에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곳 시립병원에 호스피스팀이 결성되어 영혼의 산파역할을 할수있게 되기를...

심 - 터

우리는 모두 신에게서 부여받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힘을 한번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평생을 마치고 있다. 그 힘을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사용해서 병에 걸리거나 불행에 빠지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유는 오로지 '자신을 깨닫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에너지는 '자신을 깨닫는' 의지력을 고조시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두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모든 자기혐오, 자기부정의 마음을 버린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찬사를 받고 싶다는가, 칭찬을 받고 싶다. 또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과대 욕구를 버린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란 배우자와 연인, 부모, 자식, 친구, 동료, 이웃 사람 등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당신은 특히 두 번째 조건을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에 그대로 실행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두려움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진정으로 인정받는 길은,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터득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바로 '깨닫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그들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힘을 다른 사람을 키워주는 인간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자기자신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협조해주지 않는다. 어느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 냉혹한 현실 사회 속에서는 스스로를 의지하기가 너무도 힘들다. 아무도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말은 틀림없다. 아무도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다. 당신 혼자 힘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대단히 깊은 영혼의 차원에서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독립적으로 혼자 떨어져 있는 영혼은 어디에도 없다.

내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의 현생에서 우리는 모두 내가 '나' 이기 때문에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을 의지할 수 있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우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일이 없어지므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매기거나 혹독하게 책망하는 일이 사라진다. 따라서 진심으로 자기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상대방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전해진다. 당신이 진심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 배우자나 연인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크나큰 자유를 얻게 된다. 또한 아이들은 좋은 성적을 얻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는 이유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인생을 함께 살고 싶기 때문이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서로를 타끼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건설적인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테리 콜 휘테거 지음 "내가 내가되는 책"(국일미디어) 중에서.